

안동 **씨** FEEL 문화

느낌이 있는 관광 | 2023 Autumn VOL.63

CONTENTS

함께하는 Andong

04

다른 문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추석과 송편



의미있는 Andong

10

안동의 산
와룡산



맛이있는 Andong

16

카페 서원, 뮤즈 레스토랑
카페 도담상회, 끼니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재미있는 Andong

20

여행 고수의 기술
여행과 에너지



느낌있는 Andong

24

시장 느낌있게 즐기기!
안동 전통시장 탐방



알아보는 Andong

28

편안한 동쪽의 창작예술인들,
극단 안동



발행인 이동원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원태경 편집위원 권재환 이상문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2-9230 이메일 wontae@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발행일 2023년 9월(통권 제63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베트남, 중국 여자들이 함께하는 안동 여행

다른 문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추석과 송편

글 사사끼세이코, 고나은, 원민지

〈일본〉

아침저녁 바람이 선선해진 가을 오후, 다가올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송편 체험을 하러 '예미정 종가음식체험관'에 다녀왔다. '예미정'은 안동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안동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점이고, '예"미"정'은 유교문화에 기초한 '예의 바른 음식'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동은 조상을 숭배하고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봉제사 접빈객'의 전통 음식문화가 오롯이 살아있는 고장이다. 그 정신 그대로! 우리를 반겨준 사장님이 친절하게 송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음식을 많이 만들고 쉴 틈도 없이 오는 친척이나 손님을 맞이하기 바쁜 며느리에게 명절이라는 말은 맞이하길 싫어했지만, 안동에 온 지 22년이 지나면서 아이가 크고 시어머니 연세도 많아지면서 흥겨운 분위기가 사라져 버린 지금은 옛날의 바빴던 추석이 그림자다. 우리





아이가 어릴 적 뛰어다니며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즐겁게 만들던 시절이 생각났다.

일본의 추석은 양력 8월 13일~16일 나흘간이 일반적으로, 일본의 전통 풍습과 불교의 가르침이 혼합된 결과 가족이 모여 조상을 추모하고 공양한다. 등은 조상님이 집에 오실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발길을 밝게 한다. 그리고 오이와 가지를 장식하는데 오이는 '말'이고 가지는 '소'이다. 이는 '조상님 오실 때는 말을 타고 빨리 오시고 돌아갈 때는 소를 타고 천천히 돌아가세요.'라는 소원을 담고 있다. 조상님을 모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나흘 동안 스님을 불러 독경을 부탁하는 것, 회식, 성묘 등 가정 내 행사와 '봉오도리'라는, 전통의상을 입고 모여 북이나 음악에 맞춰 춤추거나 포장마차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는 것도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추석 행사의 하나이다.



추석의 문화는 일본과 한국이 매우 다르지만, 조상을 그리워하고 가족이 모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둥근 떡을 만들지만,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송편이 훨씬 맛있는 편이다. 한국의 송편 만들기 체험을 통해 맛있는 떡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미정 종가음식체험관'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





〈베트남〉

한국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설날과 더불어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로 한가위, 8월 대보름 등으로도 부른다. 추석 때는 소싸움·길쌈·강강술래·달맞이 같은 여러 행사가 펼쳐진다. 농악을 즐기기도 하고 마을 주민끼리 편을 가르거나 다른 마을과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고,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는 씨름, 닭싸움도 즐긴다. 추수를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

지금까지 추석을 보내면서 송편은 집에서 만들지 않고 사서 먹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추석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삼색 송편을 만들어보았다. 송편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한다.

1. 멥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어 익반죽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치댄 후 젖은 면포로 30분간 덮어 숙성한다.
2. 떡 반죽을 밤알만 한 크기로 떼어 둥글게 빚는다.
3. 둥근 반죽의 가운데를 엄지로 누르며 돌려 우물처럼 움푹하게 만든다.

4. 깨소나 콩소를 작은 손가락으로 떠 넣고 잘 오므려 조개 모양으로 예쁘게 빚는다.
5. 찜통에 솔잎을 깔고 빚은 송편이 서로 닿지 않게 떡 한 켠, 솔잎 한 켠씩 올린다.
6. 불에 올려서 약 30분 정도 찌서 떡이 익으면 꺼내어 솔잎을 떼고 참기름을 발라 그릇에 담는다. 솔잎이 없을 때는 젖은 면포를 깔고 찜통에 찌낸다.





송편은 고유 명절인 추석과 전통음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예쁜 손으로 알록달록 반죽을 주무르고 다양한 소를 넣어 다양한 모양의 송편을 만들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

베트남의 추석은 중추절(Tết trung thu)이라고 부른다. 중추절은 음력으로 매년 8월 보름날이다. 이날은 ‘달을 지키는 구정’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날이기도 하다. 중추절에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아이들은 달이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춤추고 노래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사자춤과 용춤을 준비하기도 한다. 중추절이 되면 부모는 자녀가 중추절을 축하할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고 집에 걸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촛불 등을 사서 함께 만들며 가족애를 돈독하게 다진다.

베트남의 추석 대표 음식은 중추빵(월병)이라 할 수 있다. 중추빵은 8월 초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중추절에는 중추빵을 먹어야 명절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중추빵, 차, 술을 구매하여 조상을 숭배하고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에게 선물한다.

추석이 다가오면 각 가정은 아이들을 위해 밝고 아름다운 연등을 준비한다. 연등은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시장, 마트에 가서 산다. 행사장에서는 등불, 별등, 아기 등불로 아이들을 맞이하며 추석 보름달이 보이면 북소리와 함께 합성을 지르며 사자춤을 춘다. 이날 어린이들은 사자춤, 용춤, 문화공연 등 문화축제에 참여해 중추절을 기념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베트남의 중추절은 특별한 활동과 함께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과 기쁨을 선사하는데 그중 하나는 ‘사자춤’이라고도 알려진 풍습이다. 사자는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며 길조를 의미한다. 사자춤은 보통 사자 옷이나 탈을 착용하고 북의 소리에 맞춰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북소리와 함께 흥겨운 사자춤을 통해 중추절의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진다.

〈중국〉

한국의 추석

일 년에 한 번인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한국인에게 추석은 가장 화려한 한국식 밥상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식들이 대단한데, 그중 제일의 음식은 송편이다. 송편을 만들 때 둥근 모습은 보름달을 상징하고 소를 넣어 반으로 말은 형상은 반달을 닮았다. 추석 송편은 '오려송편'이라 부르는데 햅쌀로 빚어 차례상에 올린다고 한다. 추석의 대표적 음식인 송편 빚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언니들과 함께 '예미정 종가음식체험관'에 다녀왔다.

송편의 종류로는 흰 송편, 쪽송편, 솔기송편 등이 있고, 속에 넣는 소에는 팔고물·깨고물·콩고물·밤·대추·꿀 등이 있다. 서울에서는 송편을 조개처럼 빚으며 황해도·강원도 등지에서는 손가락 자국을 내어 크게 만든다. 최근에는 꽃 모양, 호박 모양 등 창의적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경상도는 뽕쌀과 찹가루를 섞어 피를 만들고 강낭콩과 팥으로 소를 넣어 만든 큼지막한 찹송편이 유명하다.

한국은 추석 때 한복을 입고 햅쌀로 빚은 송편과 여러 가지 햇과일·토란국 등 음식을 장만해 추수를 감사하는 차례를 지낸다. 지역마다 추석 상은 다르지만, 송편과 토란국, 밤 같은 과일과 술은 꼭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송편은 하늘의 열매로 달을 상징하고 밤 같은 과일은 땅의 결실을 의미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제사상에 상어를 토막 내 산적으로 만든 돛배기 산적과 문어 산적은 제사에 빠지지 않은 음식이고 문어는 다리 여덟 개가 온전하게 들어 있는 것만을 사용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특색있는 차례상 차림이 있는데, 그중 송편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 한국에 시집와 예전에는 가족과 송편을 만들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크고 어른들도 연로하셔서 직접 만들지는 못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언니들과 함께 송편 체험을 할 수 있어 기뻐고 좋았다.



중국의 추석

중화권에서 추석(秋夕)은 '중추절(中秋節)'이라 부른다. 한국과 같이 음력 8월 15일에 쇠는데 중추절은 제사를 지내는 날 풍속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온 가족이 모여 월병을 선물하고 나눠 먹으면서 보름달을 감상하는 풍습으로 바뀌었다.

중국 중추절(中秋節)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은 월병(月餅)이다. 월병은 당나라 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밀가루, 기름, 설탕 등으로 만든 피에 달걀노른자, 과일 등의 소가 들어간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빵으로 그 모양은 보름달과 가족의 단란함을 상징한다. 월병도 지역에 따라 맛과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광주식 월병 (广式月饼)

광주식 월병은 피가 얇고 속이 짙 찹으며 피와 속이 2:8 비율로 식용유의 함량이 높아서 식감이 부드럽고 각종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다른 월병에 비해서 말랑하고 고소하다.



광주식 월병 (广式月饼)

2. 북경식 월병 (京式月饼)

북경식 월병은 북방에서 주로 판매되며 특징은 피와 속이 4:6 비율로 당도가 적당하고 식감이 부드럽다. 홍월병, 백월병, 오인월병이 대표적이다.



북경식 월병 (京式月饼)

3. 상해식 월병 (苏式月饼)

상해식 월병은 상해지역에서 기원하여 강소성 및 주변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 겉은 바삭하고 피는 부드러우며 속은 다섯 가지의 견과류, 팥, 다진 고기가 들어간다. 다른 월병에 비하여 당도가 높은 편이다.



상해식 월병 (苏式月饼)

4. 운남식 월병 (滇式月饼)

운남식 월병은 귀주 및 주변 지역에서 기원하여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 월병이다. 피가 부드러우며 속은 운남식 소시지를 이용하여 짭짤과 단맛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다.



운남식 월병 (滇式月饼)

5. 초오싼 월병 (潮式月饼)

초오싼 월병은 광동성 초오싼 지역의 과자류 식품의 일종으로 속은 실타래처럼 늘린 엿에 콩고물, 쌀가루, 참깨 가루 등을 입혀서 바삭하게 만든 과자인 쭈탕으로 만든다.



초오싼 월병 (潮式月饼)

* 본 카테고리는 3개국의 필진이 안동을 여행하며 체험한 내용을 하나의 글로 취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안동의 산 - 와룡산

글 김균탁

안동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감싸고 있는 경상북도, 그것도 중앙에 위치한다. 그렇기에 산맥에서 뿜어 나온 줄기가 이룬 이름 높은 산들이 많다. 태백산맥 줄기에서 뿜어 나온 산도 안동을 품고 있고, 소백산맥 줄기에서 뿜어 나온 산도 안동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그렇기에 안동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산이 많이 있으며 많은 등산객이 안동의 명산을 찾아 안동으로 온다. 전국적으로 높은 봉우리를 자랑하는 산은 없어도, 안동의 산은 각각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안동에서 조금이라도 이름난 산은 산을 오르는 느낌부터 다르며, 산에서 느껴지는 정기마저 모두 다르다. 그것이 바로 안동이 가진 산의 매력이며, 안동에 있는 산을 올라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오로지 산을 느끼겠다는 일념으로 안동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안동에 있는 오래되고 명성이 있는 산은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산속으로 녹아든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어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곳곳에서





무속 신앙이 깃든 바위



토속신앙을 마주하기도 한다. 바위에서, 나무에서, 쌓아놓은 돌에서, 동굴에서 깊게 새겨진 우리 선조의 숨결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와룡산 역시 토속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이다. 특이한 바위마다 무속인들이 기도와 치성을 드리던 흔적이 남아있고, 특이한 나무나 바위에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아주 오래되고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선조들이 왜 나무와 돌에 이름을 붙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곳에서 어떤 토속적 의식이 이루어졌는지 무수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그렇기에 와룡산은 오르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토속신앙을 찾는 재미도 가지고 있다.

물론 와룡산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산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산을 올라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특이점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산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경치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와룡산 역시 그 특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경치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주는 산의 묘미 또한 와룡산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다. 봄에 피는 진달래, 여름 나무가 만드는 그늘, 가을이 주는 단풍, 겨울 산에서 피는 아름다움 눈꽃이 와룡산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으며, 와룡산이 가진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와룡산에 핀 꽃



와룡산에서 만나게 되는 무속적인 바위

와룡산은 이름 그대로 안동시 와룡면에 자리하고 있는 명산 중의 하나이다. 와룡면은 수많은 산이 감싸고 있지만, 와룡산은 마을의 이름을 땔 만큼 그 상징성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산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와룡산을 오르는 것은 와룡이라는 동네가 가진 정기를 고스란히 몸으로 체득하는 일이고, 와룡산이 품고 있는 전통과 자연의 향기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맞이하는 일이다.

일례로 와룡산을 오르며 만나게 되는 나무와 꽃은 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출해 준다. 그리고 산을 오르는 길 중간중간에 놓인 전통적인 신앙의 흔적은 산의 유서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산은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산은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품고 있다. 꽃의 숨결, 나무의 숨결, 동물의 숨결, 바위의 숨결이 산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가 시작되며 인류의 숨결이 역사만큼 이어져 오고 있다.

산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와룡산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전통 신앙이 깃든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자연이 만들어 낸 아름다움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와룡산은 고유의 꽃과 나무의 정기, 인류의 역사를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한국의 정서와 인류, 지구의 역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안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와룡산을 오르는 것은 단지 등산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 와룡산을 오른다는 것은 산을 정직하게 느끼는 일이며, 우리의 전통을 몸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일이다. 꽃과 전통 신앙으로 머리와 마음을 아로새기는 일, 와룡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몸에 커다란 울림을 올린다.

무엇보다 와룡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등산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길이지만 결국에는 산 아래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길, 그렇기에 와룡산은 한 번만 올라가는 산이 아니다. 여러 번 그것도 여러 갈래로 난 길을 따라 여러 차례 올라야 하는 산이다. 그리고 길마다 마주치는 새로움을 느껴야 하는 산이다.

그렇게 여러 길을 모두 섭렵했을 때만 와룡산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갈래의 길로 와룡산을 접했을 때만 와룡산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필자 역시 와룡산을 여러 번 올랐다. 그리고 오를 때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길마다 느껴지는 산의 느낌은 매번 달랐다. 그것은 와룡산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와룡산에 있는 식용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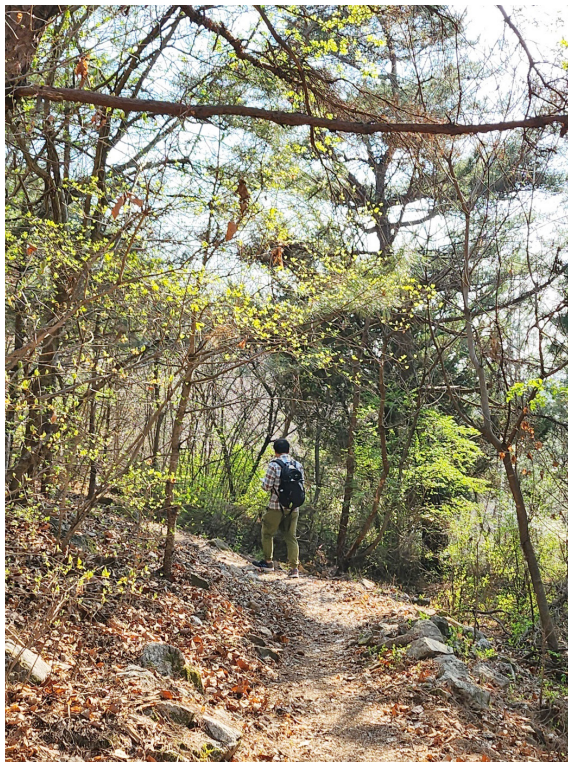


와룡산에 있는 우리의 야생화

주기 위한 와룡산의 배려일 것이다. 필자 역시 산의 다양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에 위로받을 수 있었고, 산의 정기를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무속이 가진 힘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속의 힘에 전적으로 기대어 삶을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다. 전통적인 토테미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와룡산이 가진 전통 신앙이 주는 편안함을 느껴보라. 선조들이 산에 들인 정성과 공덕의 힘을 느껴보라는 말이다.

와룡산은 말 그대로 다양한 힘을 품고 있다. 그 속에는 자연이 주는 힘도 있고 산 자체가 품기는 힘도 있다.



와룡산 등산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흔적이 주는 전통적인 힘도 있다. 그러니까 와룡산을 오르며 이 모든 힘을 한번 느껴보자는 말이다.

꼭 모두를 한 번에 느낄 필요는 없다. 자신이 느끼고 싶은 것만을 느끼면 된다.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와룡산이 가진 매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이런 것에서 감동과 희열의 느낌을 느끼기 싫다면 와룡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서 커다란 힘이 된다. 나무가 뿜어내는 기운과 나무가 만들어 낸 꽃길 사이를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커다란 위안이 되는 것이다.

와룡산은 등산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산이 아니다. 와룡산 속에 파묻힌다는 것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와룡산을 가로지르는 모든 등산로가 엄마의 손길과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뿜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뜻한 안식을 전해주는 것 같다.

그렇기에 와룡산 속에는 엄마의 정기가 숨어 있다. 곰바위, 두꺼비 바위 등이 뿜어내는 정기가 절대 아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기, 그 속에 엄마의 따뜻한 정이 들어 있는 것이다.

키가 커다란 나무 사이를 걷는 것, 이제는 나보다 작아진 엄마의 품속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나보다 키가 크고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던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산, 그곳이 바로 와룡산이다.

무엇보다 와룡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은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와룡산이 가진 정상에 매력을 뜻한다. 와룡산의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을이 아닌 와룡이라는 곳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와룡산의 매력은 와룡이라는 마을 전체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는 말 그대로 산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정상에 올랐을 때 느낄 수 있는 쾌감, 경치와 성취감이 어우러졌을 때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산이 가진 매력이고 와룡산 정상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와룡산 정상의 풍경

안동에는 이름난 산들이 많다. 갈라산, 천등산, 아가산, 학가산 등 여러 명산이 안동을 두루 감싸고 있다. 그것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줄기가 안동을 감싸고 흘러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은 각각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산마다 가진 고유한 매력은 산이 가진 정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것이다.

와룡산도 그렇다. 와룡산만이 가진 매력은 사계절 내내 그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아니, 유혹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도

와룡산 정도의 높이라면 쉽게 도전하고 와룡산이 가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와룡산이 가진 매력, 그 매력은 너무나 다채로워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뿜어내는 아름다움, 곳곳에 전통 신앙을 품고 있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산 자체가 가진 정기, 무엇보다 정상에 올랐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쾌감, 이 모든 것이 와룡산을 올라야 하는 이유이며 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될 아름다움이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 와룡산 역시 가을에 깊게 물들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 와룡산을 올라 보지 않았다면 와룡산의 가을을 느껴보았으면 한다. 와룡산 능선을 따라 난 여러 갈래 길을 꼼꼼히 오르며 산이 가진 힘을 느껴보았으면 한다.

산은 그 자체로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자신이 가진 매력을 산의 품에 안겨 느끼고 가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에 와룡산의 여러 갈래 길에서 산이 우리를 왜 부르고 있는지 느끼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카페 서원

-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300
- 전화번호 0507-1379-5312
- 영업시간 10:30 ~ 19:00
- 휴무일 매주 월요일

카페 서원은 퇴계 이황이 세운 도산서당을 기초로 제자들이 지은 도산서원 인근에 있는 카페이다. 이정표를 따라 내리막으로 가면 카페 앞 마당에 주차장이 있다. 'ㄱ'자 한옥 형태로 되어있고 외벽 대부분이 통유리로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있다. 내부 공간은 방석을 깔고 앉는 좌식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입식을 원하는 분은 야외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 나무 그늘에서 차 한잔 즐기면 된다. 곳곳에 소반과 고무신, 장기, 숯대, 책 등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카페 주변 가볼 만한 곳으로 예기마을, 선성현문화단지, 도산서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이 있다.





뮤즈 레스토랑

뮤즈 레스토랑은 안동 야경 명소인 월영교 인근에 있는 경양식 돈가스 맛집이다. 빈티지한 인테리어로 소파와 각종 소품이 옛 추억을 상기시켜 준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아름다운 월영교와 월영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식사 메뉴로 수제돈가스, 소불고기라이스, 오징어라이스 3가지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식사를 주문하면 한정식처럼 반찬이 깔끔하게 나오고 구수한 식전 수프가 제공된다. 다양한 반찬은 밥 한 그릇 똑딱할 만큼 맛이 좋고 정갈하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인 수제돈가스는 국내산 등심을 이용하는데 위에 소스를 넉넉하게 올려 나온다. 일본식 돈가스처럼 두툼하게 나와서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두드려서 얇게 만든 돈가스 위에 소스를 듬뿍 올려 나오는 경양식 돈가스이다. 식당 주변 가볼 만한 곳으로 월영교, 월영공원, 낙강물길공원 등 식사하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 주소 경북 안동시 석주로 231
- ☎️ 전화번호 054-841-2573
- 🕒 영업시간 11:00 ~ 21:00
- 🚪 휴무일 매장 문의 후 방문

- 주소 경북 안동시 북주5길 38 1층
- 전화번호 0507-1304-9102
- 영업시간 평일 09:00 ~ 22:00 // 주말 10:00 ~ 22:00
- 휴무일 인스타그램으로 공지 @dodam.market



카페 도담상회

카페 도담상회는 의성에서 성업하다가 안동 옥동 번화가 인근으로 이전한 디저트 카페이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외에 포케와 그릭요거트를 판매하고 있다. '포케'란 하와이 언어로 '자른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재료와 생선회를 깎둑썰기하여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기는 음식이다. 베이직, 베이컨, 닭가슴살, 그릴드새우 4가지 포케 메뉴가 있으며 오리엔탈, 스리라차마요, 시저드레싱 3가지 소스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것을 세트로 시켜 소액만 추가하면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합리적이다. 이 카페의 치즈케이크는 밀가루를 쓰지 않고 만든 글루텐프리 음식이라 체강 질병, 장이 예민한 분에게 추천해 드린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이고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이다.





끼니가

끼니가는 송현오거리에서 영주 방향으로 약 12km 떨어져 안동 시가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국수, 묵밥 전문 식당이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앞 넓은 공터에는 찾아온 손님들의 차로 가득하다. 일회용 숟가락 뒤에 숯자를 붙여서 만든 순번 대기표가 웃음을 자아낸다. 반찬은 3가지로 간결하지만, 메인 메뉴와 함께 먹기에 부족하거나 손색이 없다. 차돌박이된장국수는 감칠맛이 나는 된장 육수에 함께 나오는 밥 한 그릇 말아먹으면 반찬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일품이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경양식 돈가스 또한 큼직한 크기에 소스와 잘 어울려지고 국수와 함께 먹어도 좋다. 이날 주문하지 못한 묵밥 또한 계란 지단, 김가루, 김치가 듬뿍 들어가 별도의 간을 하지 않아도 조화로운 맛을 낸다고 하니 추천한다. 식당 주변 가볼 만한 곳으로 이천동 제비원 석불상, 세계문화유산 봉정사가 있다.



-  **주소** 경북 안동시 북후면 경북대로 1656
-  **전화번호** 0507-1345-5669
-  **영업시간** 10:00~20:00(Last order 19:30)
-  **휴무일** 매주 일요일

여행 고수의 기술 - 여행과 에너지

글 김수형 지례예술촌

사람들은 여행과 에너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 과거 여행을 다니기가 어렵던 시대에는 여행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고 한번 가면 최대한 많이 보고 오는 것을 그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요즘의 여행은 일상에 가까워졌다. 주말이 되면 교외로 가볍게 나들이 가는 것을 시작으로 원거리의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행, 그리고 몇 개월씩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예전에 비해 흔한 시대가 되었다. 기회가 적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봐야 하는 시대에서 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해 좀 더 여유롭게 한곳 한곳을 즐길 수 있는 시대로 변했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고도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과거의 습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요즘 스타일의 새로운 여행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나뉘진다. (그렇다고 칼로 자르듯이 양단되는 것은 아니다. 때론 과거 스타일로, 때론 새로운 스타일로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례예술촌 전경



필자가 운영하는 숙소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필자가 운영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11시경에 도착하는 손님들도 받았지만, 요즘은 8시 이후에 입실하는 손님은 사전에 조율해서 받지 않고 있다. 이 깊은 산속 숙소에 숙박하기 위해 밤길을 1시간이나 달려 심야 11시에 도착해서 급하게 씻고 잠을 자고 일어나 짧은 아침 시간을 보내고 오전 11시에 체크아웃하는, 12시간 정도 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숙박객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굳이 밤길을 1시간이나 달려 깊은 산속에서 숙박하기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많은 시내의 숙소를 정하고 여행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숙소를 오래 운영하다 보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고 손님들과 좋은 것을 취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빠른 입실에 있다. 손님들의 만족도를 보면 8시경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손님들의 만족도가 낮으며 재방문율도 낮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찾아오지 않다가 정확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를 필자는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 늦게 도착하는 숙박객들은 안동의 많은 관광지를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보고 저녁을 시내에서 먹고 이곳을 향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숙소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산길을 불안불안하게 운전하며 쌓인 짜증을 숙소에서

분출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런 여행자들이 일찍 숙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힘든 스케줄이 간단해지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숙소에 도착하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물론 숙소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숙소에 마당이나 정원이 있고 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또는 실내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숙소에 바비큐가 있다면, 숙소에 조리시설이 있다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많은 숙소가 바비큐와 조리시설을 무기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바비큐와 조리시설도 좋은 즐길 거리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기에 빼앗기는 에너지가 없어지고 여행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진다. 서로 못한 이야기도 나누고 가만히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여행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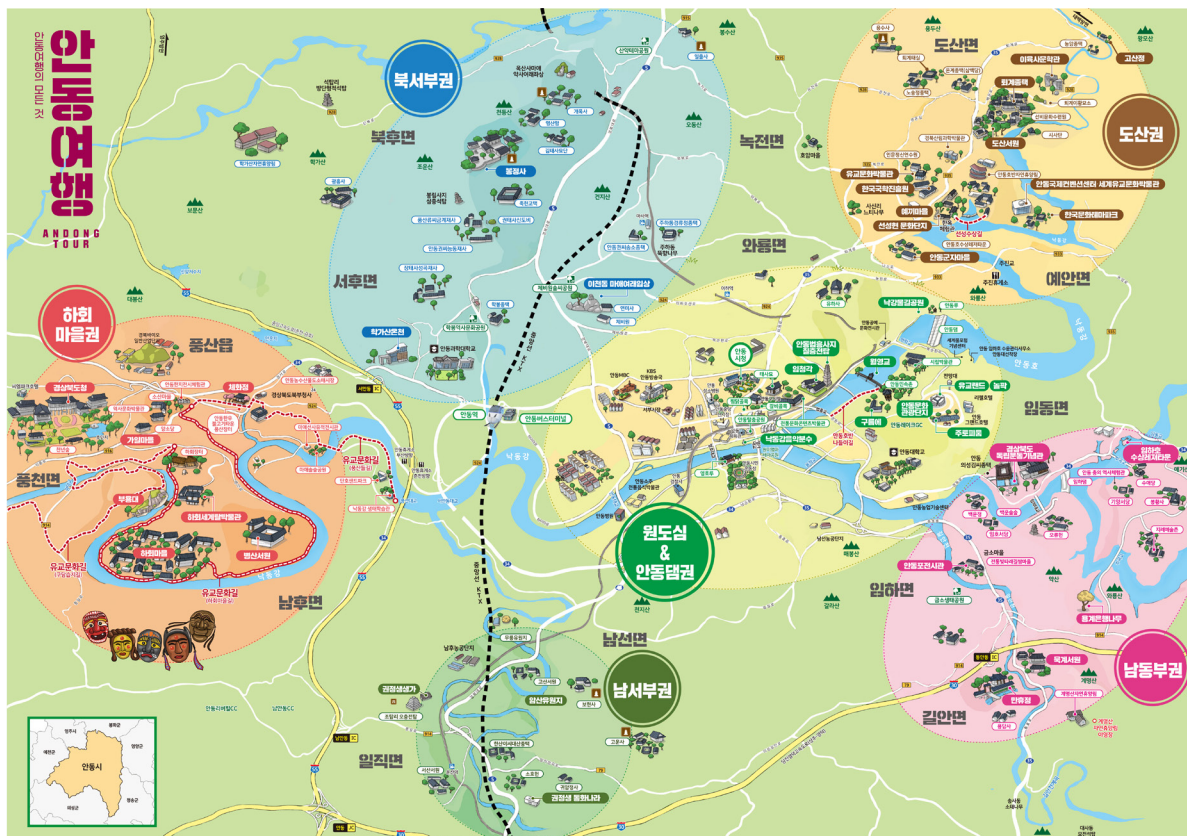
안동에는 이런 여행이 가능한 숙소가 많다. 특히 고택들이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안동 시내에 독채 한옥 민박이 많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곳들도 소수의 인원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안동을 여행할 때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생각해서 일정을

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단순히 여러 곳을 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안동은 서울의 2.5배이며 제주도보다 조금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지역이다. 일정을 잘못 짜면 대부분 시간을 길에서 보내다가 정작 보거나 즐기거나 해야 하는 포인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가운데에 한라산을 두고 해안가에 많은 관광지가 있다면 안동은 안동 시내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관광지가 흩어져 있어서 횡단하며 다녀야 하는 특성이 있다. 다행히도 예전보다 권역으로 묶이는 형태로 관광이 변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여행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떠나게 된다. 밤거리를 즐기기에 좋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야경이 좋은 포인트를 보러 가기도 한다. 그리고 유적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재미난 놀이기구를 타며 보내기도

한다. 이 모든 여행에는 자신의 에너지가 충분해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무리한 계획을 짜기보다는 자신의 에너지를 고려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을 여행지에서 몰입하여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다. 그런 여행이 있다면 이런 여행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만족도 높은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그것에 맞게 일정을 짜고 그에 맞는 숙소와 코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관광지를 중심에 넣고 다니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소모하는 관광 포인트를 여러 곳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한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그 한곳에서의



권역별 안동여행 정보



안동의 대표적인 야경 포인트인 월영교

실망이 크면 여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작은 포인트 여러 곳을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한두 곳에서 실망해도 다른 곳에서 빨리 복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리단길’들이 작은 포인트를 모아놓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관광지로써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안타깝게도 아직 안동에는 ‘오리단길’같은 관광 포인트가 없다. 반드시 ‘오리단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광 포인트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포인트이다. 안동도 이러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니 그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기대를 걸어본다.



유적지인 군자마을 (오천 유적지)

시장 느낌있게 즐기기! 안동 전통시장 탐방

토심에 위치한 현대식 시장부터
세골에 위치한 전통시장까지,
지역 고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느낌있는 안동의 시장



안동구시장

점담골목으로 유명한 안동구시장은 육류,
해산물,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안동의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번영1길 55
- 장 날 상설, 정기 2, 7일
- 주요 상품 안동찜닭, 한우, 문어, 잡화류 등





중앙신시장

도시의 발달로 안동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형성된 시장으로 간고등어, 문어, 돔배기 등 제사용 해산물을 비롯하여 안동 한우, 농산물 등을 판매한다.

-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시장1길 54
- 장 날 상설, 정기 2, 7일
- 주요상품 안동 간고등어, 문어, 돔배기, 농산물 등



서부시장

주로 농산물 거래를 위한 전통시장으로 식당가, 잡화점 등 상설 상가와 소규모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이 있는 아기자기한 시장이다.

-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시장길 39
- 장 날 정기 2, 7일
- 주요상품 농산물, 생필품 등





복문시장

주로 안동 북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래하는 작은 시장으로 식육점,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여러 식당이 있다.

-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상지길 6
- 장 날 정기 2, 7일
- 주요상품 농산물 등



용상시장

용상동 인구 증가로 인해 발달한 상가형 복합 전통시장으로 과일, 채소, 육류 등을 판매한다.

-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862
- 장 날 상설
- 주요상품 과일, 채소, 잡화류 등





풍산시장

시골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장으로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제사용품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농수산물, 의류, 잡화류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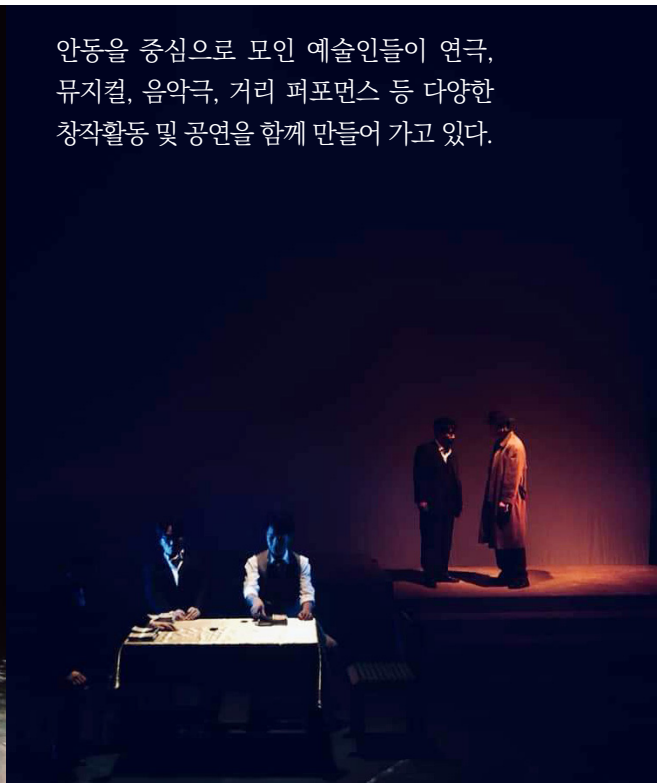
-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하리들길 7-1
- 장 날 정기 3, 8일
- 주요 상품 한우, 농수산물, 의류, 잡화류 등

편안한 동쪽의 창작예술인들, 〈극단 안동〉

글, 사진 김신근



안동을 중심으로 모인 예술인들이 연극, 뮤지컬, 음악극, 거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창작활동 및 공연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2016년 2월 문을 연 그들은 음악극 ‘필근이 온다’로 첫 무대에 오른 후 연극 ‘단절’ ‘파라호 김용환’ ‘석주 이상룡: 세 가지 부탁’ ‘뮤지컬 ‘심학규’, ‘원이엄마’ 등 1년에 두세 작품씩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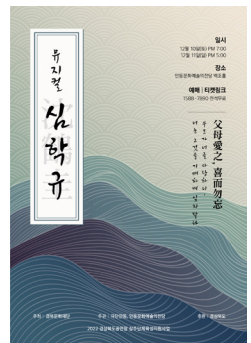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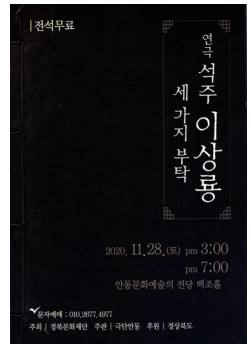
안동 시내 근방의 작은 지하 연습실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다 지난 2019년에는 지하 연습실을 단장하고 다듬어 작은 소극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 단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공연예술창작소 1st(1번가)’는 안동시 중앙로 7번지에 위치해 다양한 예술집단이 대여를 통해 연습을 진행하거나 공연을 올리는 공간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공연예술창작소 1st에서 올린 연극 ‘단절’의 연습 모습



꾸준히 정단원과 준단원 그리고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에서 많은 배우를 수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대본 구성, 연출, 연기, 음악, 무대 시스템 전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극단 안동>. 극단 내부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대구 등에서 활동하는 배우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생력’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연극, 음악극, 뮤지컬 등의 작품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행사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안동행사의 꽃이라 불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2016년도부터 <시장놀이패>라는 퍼포먼스 팀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시장 상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의 안동시장에 도착해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제로, 축제장에 물려있는 축제의 장을 안동시 전역으로 넓힌다는 목표 아래 결성되었다. 메인 프로그램인 <시장놀이패> 이외에도 매년 축제의 주제에 맞춰 퍼포먼스를 보는 이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 탈> 퍼포먼스 등을 함께 진행해 시장상인, 지역민, 관광객들과 함께 축제장 밖에서도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다.



연혁

〉 2016년

- 2월 극단 안동 창단
- 3월 APAF 선정 음악극 '필근이 온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5월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초청 음악극 '필근이 온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10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시장만담> 퍼포먼스 (안동시 전역)
- 11월 뮤지컬 '강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17년

- 3월 연극 '김점례 할매의 이름찾기 운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9월 연극 '단절' (공연예술창작소 1st)
- 10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시장놀이패> 퍼포먼스 (안동시 전역)
- 11월 연극 '김점례 할매의 이름찾기 운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18년

- 4월 음악극 '노란 손수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12월 음악극 '파락호 김용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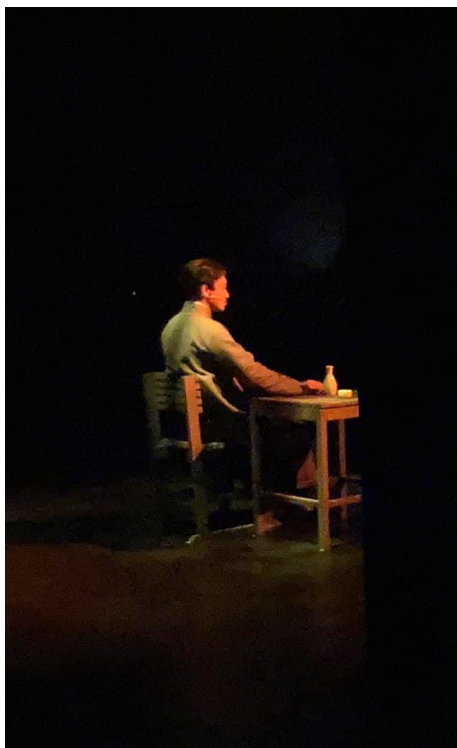
> 2019년

- 2월 연극 '모두 잘 지냅니다.' 공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4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뮤지컬 '석주 이상룡' (중국 창사)
- 8월 월령야행 <보부상> 퍼포먼스 (월령교 전역), 광복절 기념 뮤지컬 '석주 이상룡' (안동 임청각)
- 10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시장놀이패> 퍼포먼스 (안동시 전역)
- 11월 연극 '파락호 김용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20년

- 8월 6.25전쟁 70주년 기념 히스토리텔링 공연 연극 '버스의 노인' (영주, 고령, 안동)
- 11월 연극 '석주 이상룡: 세 가지 부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21년

- 3월 연극 '심해어: 바다의 끝'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9월 야간 공포 탈출 어드벤처 <월하귀성곡> (안동 민속촌)

> 2022년

- 6월 배우체험프로그램 <나도 배우다 - I learn>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8월 국제탈춤페스티벌 <시장놀이패 in 서울>, 연극 '단절'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9월 <박물관이 살아있다!> 퍼포먼스 (안동콘텐츠박물관)
- 10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시장놀이패> 퍼포먼스 (안동시 전역)
- 11월 뮤지컬 '심학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2023년

- 3월 연극 '모두 잘 지냅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4월 배우 체험 프로그램 <나도 배우다 - I learn> 2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8월 뮤지컬 '원이엄마'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9월 연극 '단절' (포항 대잠홀)



www.maskdance.com

Imagine your
Korea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10.2.Mon. - 10.9.Mon.

구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



| 주최 | 안동시 | 주관 | 한국정신문화재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 경상북도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

- 기간: 2023년 10월 2일(월) ~ 10월 9일(월)
- 장소: 구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 중 한 가지인 탈(가면, Mask)과 탈춤을 통해 세계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2023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된다.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탈춤페스티벌이 재도약하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다. 힘들고 탈(頃)이 많았던 세상을 탈과 탈춤을 통해 희망적이고 아름답게 색인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는 국내외 탈춤공연, 탈놀이 대동난장, 마스크 EDM 난장, 세계탈놀이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지역 문화예술공연, 마스크 버스킹 대회, 자유 참가작 공연 등 신명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The 21st Century Human Values Forum 2023

2023. 10. 27.(금) - 10. 29.(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탈춤공원 미디어파사드 설치 완료 및 영상 상설시연

- 시간: 13:00 ~ 21:00
- 장소: 탈춤공원 내 한국정신문화재단 사옥
(안동시 축제장길 200)

탈춤공원 내 한국정신문화재단 사옥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완료 및 영상 제작이 완료되어 영상을 상설 시연한다. 상설시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이며 시연되는 영상은 총 6가지로 미디어아트, 권역별 안동 관광 및 축제 정보, 하회별신굿탈놀이, 판타지아 아쿠아리움, 행복 갤러리 영상이다.



안동 3대 문화권 투어버스 운행

- 운행노선: KTX안동역/안동터미널 ->
모디684(원도심, 월영교) ->
선성현문화단지 ->
한국문화테마파크 ->
도산서원 ->
월영교 ->
모디684(음식거리, 중앙신시장) ->
KTX안동역/안동터미널
- 운 행 일: 매주 화 ~ 일 운행
(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운행)
- 출발시간: 1회차 8시 20분,
2회차 11시 20분,
3회차 14시 40분(하루 3회 운행)
- 이용요금: 왕복 통합 5,000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75세 이상,
36개월 이하 무료)

3대문화권 투어버스
한국문화테마파크 ⇄ 안동역 순환버스 운행
 * 매주 (화~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운행

버스이용요금
 :: 왕복 통합 5,000원 (출발 시간: 8:20, 11:20, 14:40 총 3회 운행)
 • 국가유공자, 장애인(중증), 75세 이상, 36개월 이하 무료

문의전화 안동시티투어(054-855-7179)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tf



[instagram.com/andongtour](https://www.instagram.com/andongtour)



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